

2013년 2/4분기, 북한 핵 실험으로 큰 폭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3차 핵 실험 속에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새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 구축'으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현 방안으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북한관련 전문가 10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의 설문 응답 결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인식에 대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편익 또한 큰 것으로 응답되었다. 통일 형태와 시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남북이 하나 되는 완전한 통일을 선호하며, 통일 시기는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11년 이상 걸리겠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통일 비용을 위해 연 100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률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중국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남북 간 대화는 올해 안에 성사될 것이라는 응답이 71.9%로 가장 높아, 늦어도 하반기 내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응답되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5.24 조치해제(18.2%),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16.8%), 남북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활성화(16.4%), 인도적 지원 재개(13.6%)를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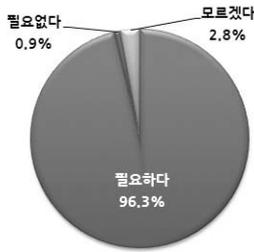
□ 2013년 2/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3년 1/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는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 지속과 대화 단절로,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긴장고조상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지난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도 크게 하락하였다. 넷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전문가의 성향 구분 없이 실적치와 기대치 모두 동반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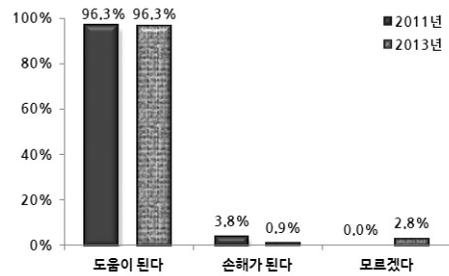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107명의 전문가 중 96.3%인 절대 다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전문가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인식도 2011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통일 편익에 대해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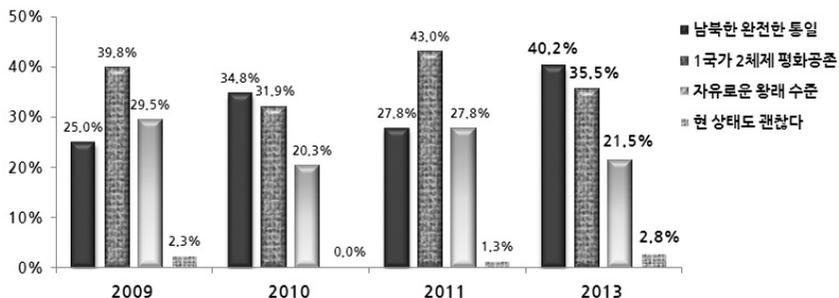


〈통일 인식〉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남북 경색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남북이 하나 되는 완전한 통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이 27.8%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여 남북 경색 장기화와는 별개로 남북의 하나 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통일의 형태〉



주 : 2009년 7월, 2010년 10월, 2011년 10월, 2013년 2월에 각각 시행한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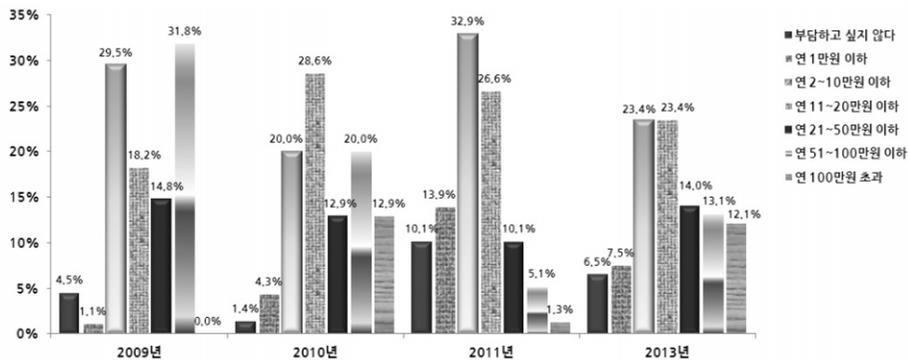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비율이 감소하다가 재차 증가했다. 2009년 기준으로 2010년 62.3%(2009년 대비 8.2%p 감소), 2011년 63.3%(2009년 대비 7.2%p 감소)까지 감소했으나, 2013년 70.1%까지 재차 상승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인해 통일은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갈수록 줄어들어(2009년 3.4%→2010년 1.4%→2011년 1.3%→2013년 0.9%), 전문가들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응답되었다.

〈통일 가능 시기〉

	2009.7	2010.10	2011.10	2013.2
5년 이내	0.0%	8.7%	6.3%	5.6%
6~10년	26.1%	27.5%	29.1%	23.4%
11년 이상	70.5%	62.3%	63.3%	70.1%
불가능하다	3.4%	1.4%	1.3%	0.9%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통일을 위해 연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연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10%p 이상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연 100만원 초과'에 대한 지불 용의가 1.3%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12.1%까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북경색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 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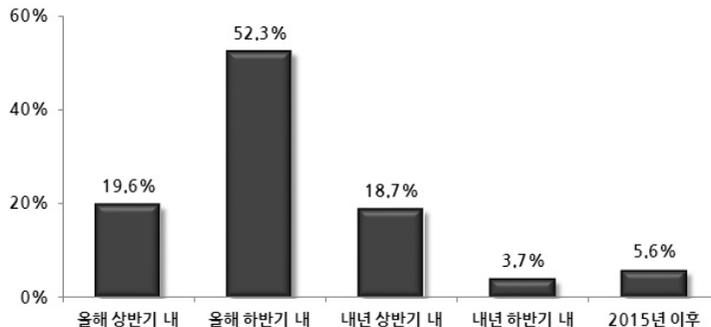
한반도 주변국들의 통일 영향에 대해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중국의 긍정적 영향이 이전에 비해 약 6%p 정도 상승하였다. 2012년과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으로의 미국의 비중은 68.1%에서 65.4%로 2.7%소폭 하락하였고, 중국은 18.8%에서 24.3%로 5.5%로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 3차 핵 실험에 따른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 조짐에 대한 기대감이 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통일 영향〉

		2012.10	2013.2
통일에 가장 도움을 줄 나라	미국	68.1%	65.4%
	중국	18.8%	24.3%
	일본	1.4%	0.9%
	러시아	11.6%	3.7%
	기타	0.0%	5.6%
통일에 가장 방해할 나라	미국	11.3%	17.8%
	중국	69.0%	66.4%
	일본	19.7%	14.0%
	러시아	0.0%	0.0%
	기타	0.0%	1.9%

북한과의 대화 예상 시기로는 올해 안에 성사될 것이라는 응답이 71.9%로 가장 높고, 내년은 22.4%, 2015년 이후는 5.6%에 불과해, 조만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르면 북한의 춘궁기가 시작되는 5~6월 경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늦어도 하반기 내 남북 간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 예상 시기〉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우선 과제로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역 재개'가 1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 (16.8%),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 (16.4%),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 성향이 '5.24조치 해제' (각각 22.7%, 21.9%)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보수 성향의 경우 '균형외교 강화' (26.2%)에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현 정부의 우선 과제〉

	종합	보수	중도	진보
5.24 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 (일반교역) 재개	18.2%	11.9%	21.9%	22.7%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	16.8%	26.2%	15.6%	6.1%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	16.4%	13.1%	17.2%	19.7%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13.6%	9.5%	18.8%	13.6%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	12.6%	17.9%	6.3%	12.1%
이산가족 상봉 추진	8.4%	6.0%	6.3%	13.6%
사회·문화 교류 확대 (문화·예술·학술·스포츠 등)	7.0%	10.7%	6.3%	3.0%
한반도의 평화협정 논의	5.1%	4.8%	4.7%	6.1%
북한경제 회생 지원 (SOC투자 확대 등)	1.9%	0.0%	3.1%	3.0%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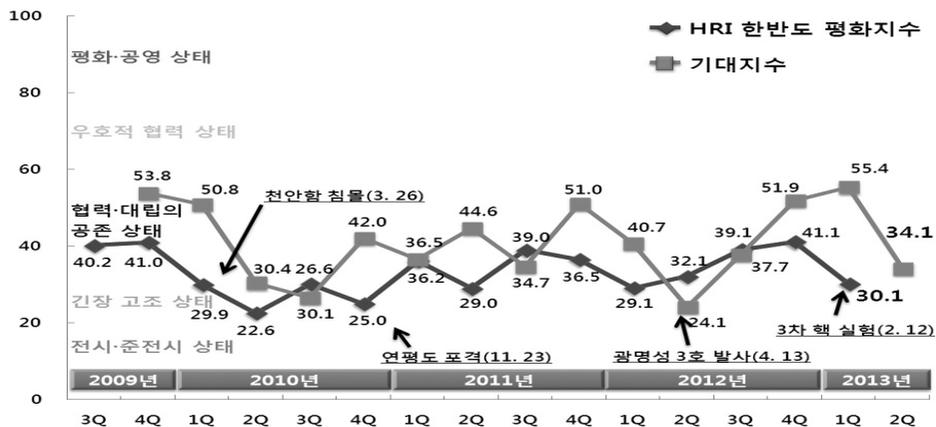
전문가 성향 구분 없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경색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대화 재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상당수인 71.9%가 올해 안에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한편 새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의 평화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불편불의(不偏不倚)의 균형외교를 실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통일을 위해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미·중·일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경분리(政經分離)의 남북경협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현안이 경제 교류 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하여,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혜분리(商惠分離)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3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 30.1을 기록하여, 지난 1년간 다소 완화되었던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위기에 따른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발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안함 사건(29.9)과 연평도 포격 사건(25.0)당시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광명성 3호 발사(32.1)당시 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기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2013년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핵 실험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직통전화 차단,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의 남북 관계 전반의 위기감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2009~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특징 분석

주관적·객관적 지수 모두가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대폭 하락했다. 1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6.1, 정량분석지수는 39.9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 보다 모두 하락했다. 지난 분기에는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모든 부문의 지수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지수의 큰 폭 하락이 정량분석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했다.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연평도 사건 직후인 2010년 4분기의 36.5보다도 낮은 34.1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 남북관계의 불안을 예고한다. 이는 북한이 3월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개성공단 진입 금지 등의 조치가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는 여전하여,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분석된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13.8p로, 지난 분기 14.4p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011~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 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3-1분기	30.1 (▽11.0)	26.1 (▽7.8)	39.9 (▽8.4)	33.5 (▽14.6)	46.2 (▽2.3)	34.1 (▽21.3)
'12-4분기	41.1 (▲2.0)	33.9 (▲6.3)	48.3 (▽2.2)	48.1 (▽3.6)	48.5 (▽0.7)	55.4 (▲3.5)
'12-3분기	39.1 (▲7.0)	27.6 (▲0.4)	50.5 (▲13.5)	51.7 (▲15.4)	49.2 (▲11.5)	51.9 (▲14.2)
'12-2분기	32.1 (▲3.0)	27.2 (▲8.6)	37.0 (▽2.5)	36.3 (▽5.7)	37.7 (▲0.8)	37.7 (▲13.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31.1	41.3	48.0	34.6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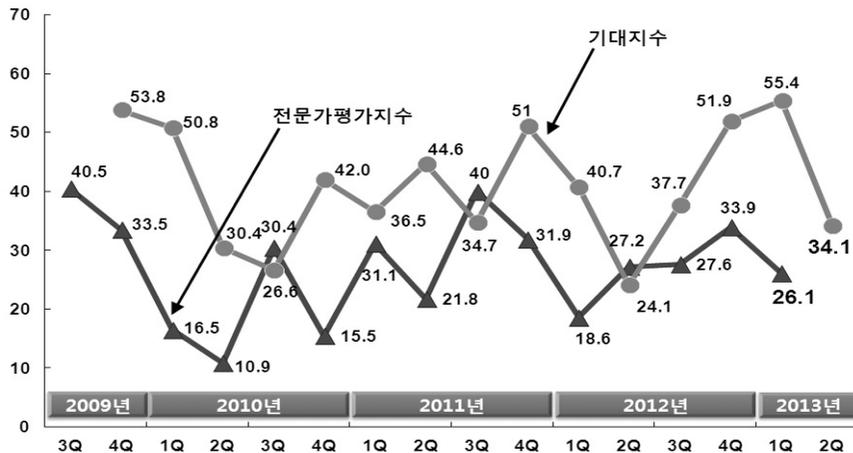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항목별 평가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제재 강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대북 위협 수위 고조 속에 전문가 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 모두 하락했다.

전문가평가지수 (2012년 4/4분기 : 33.9 → 2013년 1/4분기 : 26.1)는 지난 분기의 '긴장고조상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7.8p 하락한 26.1을 기록해 2012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 신년사의 대화 의지 피력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 국면 조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2/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21.3p 대폭 하락한 34.1을 기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분기의 남북 관계가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지수 하락은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 고조 속에 남한의 '도발 시 원점 타격' 등의 강경 대응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기대지수가 1/4분기 전문가 평가지수보다 높은 것은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 고조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도발엔 대응이 필요하지만 대화의 창은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밝힌바 있어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2009~2013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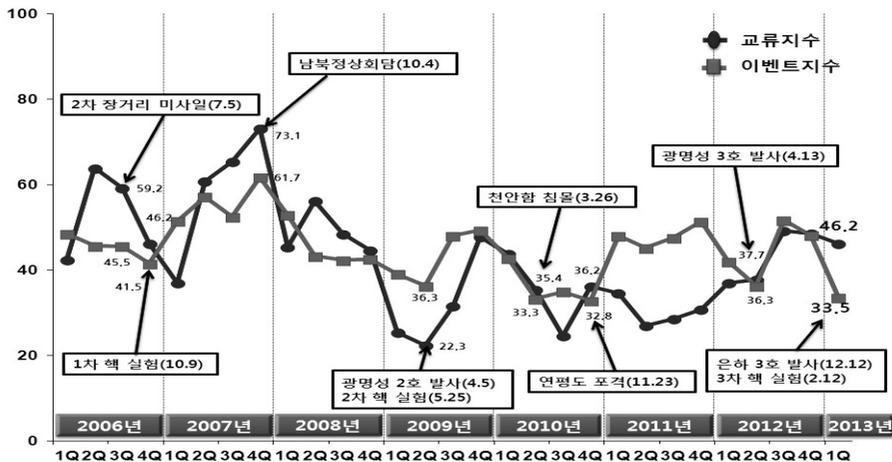
HRI 한반도 평화지수 : 2013년 2/4분기, 북한 핵 실험으로 큰 폭 하락

1분기 정량분석지수(2012년 4/4분기 : 48.3 → 2013년 1/4분기 : 39.9)는 지난 분기의 48.3보다 8.4p 하락한 39.9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는 2012년 하반기 50선을 상회하였으나,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모두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남북 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지수(2012년 4/4분기 : 48.1 → 2013년 1/4분기 : 33.5)는 지난 분기 대비 14.6p 하락한 33.5를 기록하여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안보리 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 잇따른 3차 핵 실험과 남한에 대한 '최종 파괴' 위협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4분기 이벤트지수는 2009년 2차 핵 실험(36.3), 천안함 침몰(33.3), 연평도 포격(32.8) 당시와 유사해 긴장 고조 상황이 심각함을 방증한다.

교류지수(2012년 4/4분기 : 48.5 → 2013년 1/4분기 : 46.2)도 전기 대비 2.3p 하락한 46.2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교류지수의 하락은 전 분기 대비 남북교류협력지원액(4분기 8억 6백만→1분기 25억원)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액이 전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2012년 4/4분기 51억 8,500만원→2013년 1/4분기 6억 1,500만원)

〈 2006~2013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27.1, 25.3, 24.5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7.2p, 11.8p, 6.1p 하락하여 부정적 평가로 반전했다. 특히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큰 폭 하락한 것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표명해 지난 분기에 기대감이 높았던 중도 성향의 전문가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진보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향 구분 없이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하락함으로써 2/4분기 남북 관계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까지의 대남 강경 행보를 지속하면서, 전문가들이 다음 분기에 획기적인 남북 관계의 출구 모색 마련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가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29.0 (▽7.2)	34.7 (▽9.9)
'11. 1분기	29.9	43.6	33.0	47.1	26.2	37.3	31.1	36.2	44.6